

## 徐丙孝 연구에 대한 예비적 고찰

<sup>1</sup>東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助教授  
朴薰平\*

### A Preliminary Study of Seo Byung-Hyo

Park Hun-pyeong\*

<sup>1</sup>Assistant professor at Dept. of Korean Medical history &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shin University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llect basic data about Seo, Byung-Hyo and lay the groundwork for future analysis of his medical ideas.

**Methods** : The life of Seo in regards to family and relationships was reconstructed through his genealogy and newspaper articles. His medical ideas were analyzed through the treatment records in books and historical material.

**Results** : 1. Seo was primarily a clinician rather than a social worker throughout the Korean Empire and Japanese colonial era. 2. 『*Summary of Experienced Old Prescriptions* (經驗古方要抄)』 was a concise book that mainly took after the 『*New Edition on Universal Relief* (濟衆新編)』, supplemented by contents from the 『*DongUiBogam(Treasured Mirror of Eastern Medicine)*』. 3. It is meaningful that Seo's book restored and developed the single-ingredient prescription tradition of the 『*DongUiBogam(Treasured Mirror of Eastern Medicine)*』. 4. Seo faithfully followed the tradition of royal court medicine and utilized new prescriptions that were proven effective. Analysis of the prescription contents of 『*A royal palace's diary*(內殿日記)』 displays such characteristic.

**Conclusions** : Seo, Byung-Hyo could be regarded as a clinician who faithfully inherited and developed 『*DongUiBogam(Treasured Mirror of Eastern Medicine)*』 and 『*New Edition on Universal Relief* (濟衆新編)』.

**Key words** : Seo, Byung-Hyo, Summary of Experienced Old Prescriptions, A royal palace's diary, New Edition on Universal Relief, Treasured Mirror of Eastern Medicine(DongUiBogam)

\* Corresponding Author : Park Hun-pyeong.

Dept. of Korean Medical history &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shin University

Tel: 061-330-3525, E-mail: lillipute@dsu.ac.kr

Received(July 27, 2020), Revised(August 5, 2020), Accepted(August 5, 2020)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I. 서론

白南 徐丙孝는 1857년에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 1939년에 사망하기까지, 대한제국에서 일제강점기에 걸쳐 활동한 대표적인 典醫이다. 그는 당시 널리 보급된 경험방서인 『經驗古方要抄』의 저자로도 알려져 있다. 그의 생몰 연도와 주요 관력 등 생애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기존 연구에서도 기술된 바 있다.<sup>1)</sup> 특히 金南一은 『別乾坤』 등 일제강점기 잡지와 신문을 통해 서병효의 행적들을 살펴보고, 『經驗古方要抄』에 대하여 “康命吉의 『濟衆新編』에 자신의 경험을 첨가한 형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평하였다.<sup>2)</sup> 그러나 그의 생애와 저작, 의학사상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는 이루어진 바 없다. 본 연구에서는 徐丙孝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그 자료를 바탕으로 그의 생애를 재구성하고, 장차 그의 의학 사상을 분석하려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 II. 본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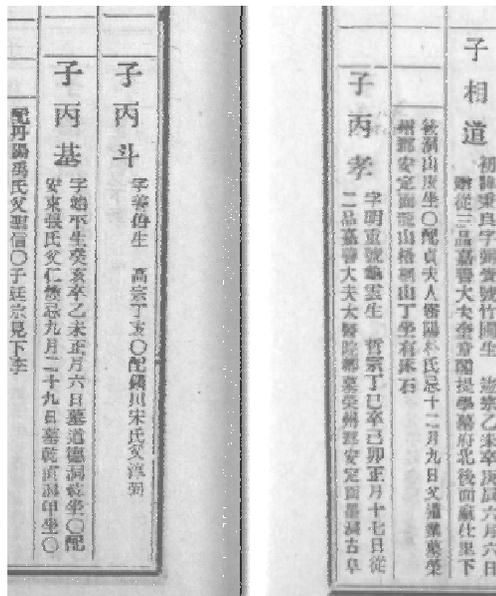
### 1. 徐丙孝의 가계와 생애

#### 1) 가계

徐丙孝는 1857년 2월 4일<sup>3)</sup>에 경상북도 안동 水下洞에서 徐相道(1835-1880)의 3남 2녀 중 첫째 아들로 태어났다. 達城徐氏 21세로 자는 明重, 호는 龜雲, 白南이다(사진 1). 그의 집안은 성균관학유를 지낸 7세손 渡를 시조로 하는 學諭公派에 속하며, 10세손 壽永 이후로 경북 안동에 대대로 세거하였다. 서병효의 고조 洛隱 徐命道(1739-1924)는 영남 남인의 적통을 계승한 大山 李象靖(1711-1781)의 제자였다.<sup>4)</sup> 徐命道는 李象靖의 문인이 수록된 『高山

及門錄』에는 徐命悅로 기록되었다.<sup>5)</sup> 그의 형인 徐命綱도 大山의 문인이었다.

사진 1. 『달성서씨 세보 병편 1』의 徐丙孝 기록



徐丙孝의 가까운 선조에서는 관직으로 출사한 이들이 없다. 지친으로 당숙(대고모의 아들)인 權道鎭(1845-1929)이 1905년 1월 軍部主事가 되고<sup>6)</sup> 그 아들인 權零睦(1870-1944, 초명: 權睦永)이 1902년 4월 内部主事가 되었다.<sup>7)8)</sup> 徐丙孝의 장남인 徐

2020 July 21]; Available from: <http://genealogy.inje.ac.kr>. 『학유공파보』 경주시립족보도서관. 달성서씨세보 [cited 2020 July 21]; Available from: [http://jokbo.gyeongju.go.kr/bbs/board.php?bo\\_table=familytree&sfl=wr\\_6&stx=472&stx1=달성&sfid=0#page/1](http://jokbo.gyeongju.go.kr/bbs/board.php?bo_table=familytree&sfl=wr_6&stx=472&stx1=달성&sfid=0#page/1)

1) 유희영, 신민교, 맹용재. 한국의약인명사전. 의성사. 서울. 1991. pp. 46-47. 박훈평. 일제강점기 의생총목록 1. 대진. 한국한의학연구원. 2017. p.213. 박훈평. 조선시대 의관총목록.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18. p.229.  
2) 김남일. 근현대 한의학인물실록. 파주. 들녘. 2011. pp.46-48.  
3) 영년의생을 발급하는 기록에 생년이 기록되었다. 『조선총독부관보』 1915년 1월 14일자. 국립중앙도서관. 조선총독부관보시스템[cited 2020 July 21] Available from: <http://https://www.nl.go.kr>  
4) 『달성서씨세보 丙編 1』. 인제대학교. 족보도서관. [cited

5) 『고산급문록 건』 목록. “徐命悅. 號 洛隱. 達城人.” 『고산급문록 권』 권3. 속집. “徐命悅. 字 聖修. 號 洛隱. 命綱弟. 己未生. 庚辰謁先生. 有疑禮問目.”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검색. [cited 2020 July 21]; Available from: <https://www.nl.go.kr/NL/contents/search.do?pageNum=1&pageSize=30&srchTarget=total&kw=%EA%B3%A0%EC%82%B0%EA%B8%89%EB%AC%B8%EB%A1%9D>  
6) 『승정원일기』 1905년 1월 12일 기사.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cited 2020 July 20]; Available from: <http://sjw.history.go.kr/id/SJW-K42010120-00400>

廷麟(1876-1918)이 1905년 5월에 6품관이 되었으며,<sup>9)</sup> 1907년 3월 順興郡主事가 되었다.<sup>10)</sup> 그러나 이들의 出仕는 徐丙孝가 出仕한 이후이다.

## 2) 생애

徐丙孝의 관력은 1901년(광무5) 12월 商工學校(1899년 개설)의 敎官으로 임명되면서 시작하였다.<sup>11)</sup> 1902년 1월에는 “平理院主事敍, 判任官六等”으로 임명되었다.<sup>12)</sup> 1904년(광무8) 9월 12일 『승정원일기』 기사에는 “太醫院醫官”으로 기재되어있다.<sup>13)</sup> 1902-1904년 사이에 太醫院으로 入屬하였을 것이나 자료의 미비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1905년 12월에 陵의 비각을 營建하고 표석을 세울 때의 공으로 6품에서 3품 通政大夫로 加資되었고,<sup>14)</sup> 1907년 10월에는 侍從院典醫長에 임명되었으며<sup>15)</sup> 1910년 8월에는 종2품 嘉善大夫로 加資되었다.<sup>16)</sup> 『

대한제국 관보』를 보면 1907년 12월에는 “勅任官三等이었고,<sup>17)</sup> 1908년 5월에는 徐丙孝의 증조부, 조부, 아버지의 官階와 官職이 추증되었다(사진 2).<sup>18)</sup>

## 사진 2. 『대한제국 관보』(1908.5.26)의 기록



1910년 8월 大韓醫師總合所에서 임원회를 열어 의학교 설립하고자 하였는데 이때 敎授로서 선정되었다.<sup>19)</sup> 같은 달 한일병탄이 이루어지면서 대한제국 관제는 폐지되었고 典醫長에서 물러나게 된다.

- 7) 『승정원일기』 1902년 4월 14일 기사.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cited 2020 July 20]; Available from: <http://sjw.history.go.kr/id/SJW-K39040140-00500>
- 8) 『안동권씨 대동보』 26권. 176p. 안동권씨 대종회. 안동권씨 인터넷족보. [cited 2020 July 21]; Available from: [http://andongkwon.or.kr/page\\_view.html?page\\_no=30](http://andongkwon.or.kr/page_view.html?page_no=30)
- 9) 『승정원일기』 1905년 5월 25일 기사.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cited 2020 July 20]; Available from: <http://sjw.history.go.kr/id/SJW-K42050250-00700>
- 10) 『승정원일기』 1907년 3월 7일 기사.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cited 2020 July 20]; Available from: <http://sjw.history.go.kr/id/SJW-K44030070-00600>
- 11) 『승정원일기』 1901년 12월 20일 기사.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cited 2020 July 20]; Available from: <http://sjw.history.go.kr/id/SJW-K38120200-00300>
- 12) 『官報』 77권,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 [cited 2020 July 20]; Available from: [http://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289\\_00&vol\\_no=0077](http://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289_00&vol_no=0077)
- 13) 『승정원일기』 1904년 9월 12일 기사.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cited 2020 July 20]; Available from: <http://sjw.history.go.kr/id/SJW-K41090120-01000>
- 14) 『승정원일기』 1905년 12월 25일 기사.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cited 2020 July 20]; Available from: <http://sjw.history.go.kr/id/SJW-K42120250-00500>
- 15) 이때 궁내부시종원 관제가 개정되어 전의장 직임이 처음 생겼다. 『승정원일기』 1907년 10월 26일 기사.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cited 2020 July 20]; Available from: <http://sjw.history.go.kr/id/SJW-L01100260-00500>
- 16) 『순종실록』 1910년 8월 25일 기사. 국사편찬위원회. 조

- 선왕조실록 DB[cited 2020 July 21]; Available from: [http://sillok.history.go.kr/id/kzb\\_10308025\\_003](http://sillok.history.go.kr/id/kzb_10308025_003)
- 17) 『官報』 147권,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 [cited 2020 July 20]; Available from: [http://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289\\_00&vol\\_no=0147](http://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289_00&vol_no=0147)
- 18) 『官報』 153권,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 [cited 2020 July 20]; Available from: [http://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289\\_00&vol\\_no=0153](http://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289_00&vol_no=0153)
- 19) 『대한매일신보』 1910년 8월 2일 기사.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cited 2020 July 21]; Available from: <http://viewer.nl.go.kr:8080/main.wviewer>

사진 3. 漢城醫學講習所의 모집 공고



徐丙孝는 1911년 1월에는 漢城醫學講習所 所長을 맡았다.<sup>20)</sup> 漢城醫學講習所는 醫師를 양성하기 위한 곳으로 수업기한은 1년이며 경성 校洞 五星學校 내에 있었다(사진 3). 徐丙孝를 제외하면 다른 강사진은 洋醫들이며 강습과목들도 물리, 화학, 해부학 등 서양의학 일반이라 전통의학을 교습하기 위한 곳은 아니다.<sup>21)</sup>

같은 해 2월 1일에 李王職典醫, 高等官 4等に 서임되면서,<sup>22)</sup> 典醫로서의 이력을 다시 이어갔다. 이 왕직이 옛 대한제국 황실 내부의 각종 업무를 접수

하여 일을 보기 시작한 것이 이때였다. 1910년 8월에서 1912년 2월 사이에는 전의 제도 자체가 없었다. 1912년 12월 대한제국 전의를 중심으로 결성된 醫學講究會에서 의사부장을 맡았다.<sup>23)</sup> 1915년 6월 29일에는 李王職典醫, 高等官 3等으로 승진되었다.<sup>24)</sup> 같은 해 7월 3일에는 조선총독부로부터 영년의 생면허 4580호를 받았는데 당시 주소는 경성부 북부 廣化坊 苑洞이었다.<sup>25)</sup> 1915년 8월에는 훈위가 정6위에서 중5위로 승서되었다.<sup>26)</sup> 1916년에 간행된 잡지 『東醫寶鑑』에는 강술사 명부에 수록되어 있다.<sup>27)</sup> 이는 그가 교육자로서도 활동했음을 보여준다. 1917년 6월 3일-7월 2일에 순종이 日王에게 '天機奉伺'를 하기 위해 일본 도쿄를 방문할 때 徐丙孝도 동행할만큼 순종에게 신임받는 전의였다. 당시 기록인 『御東上日記』에는 徐丙孝가 "李王職典醫. 從五位"로 나온다.<sup>28)</sup> 1923년 6월 20일 이왕직전의로서 칙임관 대우를 받았고,<sup>29)</sup> 1924년 6월 훈위가 勳3등(정4위)로 승서되었다.<sup>30)</sup> 이후 1925년 3월 이

20) 『每日新報』 1911년 1월 5일 기사.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cited 2020 July 21]; [https://www.nl.go.kr/newspaper/search/ElaTCalendar.do?session\\_id=C3B5251B5D2EDDB330004141255B5973&paper=%EB%A7%A4%EC%9D%BC%EC%8B%A0%EB%B3%B4\\_%E6%AF%8F%E6%97%A5%E7%94%B3%E5%A0%B1&dir\\_paper=%EB%A7%A4%EC%9D%BC%EC%8B%A0%EB%B3%B4\\_%E6%AF%8F%E6%97%A5%E7%94%B3%E5%A0%B1&q\\_paperIndex=&q\\_date=19110105&dir\\_q\\_date=19110105&dir\\_day=05&dir\\_year=1911&dir\\_month=01&pageNo=1&pagesize=50&hanjaCheck=&sort=critical&flag=1](https://www.nl.go.kr/newspaper/search/ElaTCalendar.do?session_id=C3B5251B5D2EDDB330004141255B5973&paper=%EB%A7%A4%EC%9D%BC%EC%8B%A0%EB%B3%B4_%E6%AF%8F%E6%97%A5%E7%94%B3%E5%A0%B1&dir_paper=%EB%A7%A4%EC%9D%BC%EC%8B%A0%EB%B3%B4_%E6%AF%8F%E6%97%A5%E7%94%B3%E5%A0%B1&q_paperIndex=&q_date=19110105&dir_q_date=19110105&dir_day=05&dir_year=1911&dir_month=01&pageNo=1&pagesize=50&hanjaCheck=&sort=critical&flag=1)

21) 황영원이 조사한 민간 한의학 강습소 명부에도 없다. 황영원. 일제시기 한의학 교육과 전통 한의학의 변모. 의학학. 2018. 27(1). p.11.

22) 『순종실록』 1911년 2월 1일 기사.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DB[cited 2020 July 21]; Available from: [http://sillok.history.go.kr/id/kzc\\_10402001\\_001](http://sillok.history.go.kr/id/kzc_10402001_001)

23) 『每日新報』 1912년 12월 29일 기사.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cited 2020 July 21]; Available from: <http://viewer.nl.go.kr:8080/main.wviewer>

24) 『순종실록』 1915년 6월 29일 기사.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DB[cited 2020 July 21]; Available from: [http://sillok.history.go.kr/id/kzc\\_10402001\\_0011](http://sillok.history.go.kr/id/kzc_10402001_0011)

25) 『조선총독부관보』 1915년 1월 14일자. 국립중앙도서관. 조선총독부관보시스템 [cited 2020 July 21]; Available from: <http://https://www.nl.go.kr>

26) 『每日新報』 1915년 8월 18일 기사.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cited 2020 July 21]; Available from: <http://viewer.nl.go.kr:8080/main.wviewer>

27) 김남일. 근현대 한의학인물실록. 파주. 들녘. 2011. p.77.

28)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 장서각.[cited 2020 July 20]; Available from: <http://jsg.aks.ac.kr/> 황영원은 식민당국의 입김이 강했던 연구단체 조선의사연찬회 내의 파벌문제. 의학연구회가 생겼다고 보았다. 그 근거로 의학연구회의 임원진이 조선의사연찬회의 주요 임원임을 지적했다. 식민당국의 합병 권유 알선으로 1913년 8월 두 단체가 다시 합병하여 조선한방의사회로 바뀌기도 하였는데 다시 무산되고 1913년 말 의생규칙 반포이후 조서의생회로 개명되었다. 황영원. 가려진 의생단체의 모습. 사림. 2017. 59. pp. 173-175.

29) 『每日新報』 1923년 6월 22일 기사.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cited 2020 July 21]; Available from: <http://viewer.nl.go.kr:8080/main.wviewer>

30) 『每日新報』 1924년 6월 2일 기사.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cited 2020 July 21]; Available

왕직전에서 퇴직을 명받았다.<sup>31)</sup> 그러나 1926년 2-3월에도 순종에게 정기적으로 입진하여 전의장관 역할을 하였음은 『內殿日記』를 통해 확인된다.<sup>32)</sup> 정황상 순종의 승하 무렵(4월)까지 전의장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상 徐丙孝의 대한제국기 마지막 관직은 嘉善大夫, 侍從院典醫長이었고, 일제강점기 마지막 관직은 李王職典醫, 勅任官 대우, 훈3등이었다(표 1).

표 1. 徐丙孝의 官歷

시기	직임	출전
1901.12.20	商工學校 敎官임명	承政院日記
1902.1.29	平理院主事 임명	官報
1904.9.12.	太醫院 醫官 재직	承政院日記
1905.12.25	六品, 陞三品	承政院日記
1907.10.26	侍從院典醫長 임명	承政院日記
1910.8.25.	종2품으로 加資	實錄
1911..2.1.	李王職典醫, 高等官4等 임명	實錄
1915.6.29.	李王職典醫, 高等官3等 임명	實錄
1915.8.18.	정6위에서 종5위로 승서	每日新報
1923.6.22.	勅任官 대우	每日新報
1924.6.	훈3등(정4위) 승서	每日新報

31) 『순종실록』 1925년 3월 11일 기사.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DB[cited 2020 July 21]; Available from: [http://sillok.history.go.kr/id/kzc\\_11803011\\_001](http://sillok.history.go.kr/id/kzc_11803011_001).

32) 『內殿日記』는 1926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궁궐 내에서 생활하던 순종의 하루 일상을 이왕직실록편찬실에서 기록한 일기이다. 순종 승하 후인 1927년 5월 徐丙孝는 이왕직으로 하여금 자신이 순종에게 배진한 보로금을 달라는 소송을 경성지방법원에 제기도 하였다. 『每日新報』 1924년 5월 18일 기사.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cited 2020 July 21]; Available from: <http://viewer.nl.go.kr:8080/main.wviewer>

徐丙孝는 경험방서인 『經驗古方要抄』를 1931년 10월 저술하여 1936년 2월 한성도서주식회사에서 인쇄하여 자신의 약방 滄南藥局(京城 雲泥洞 6번지)에서 간행하였다. 滄南藥局의 개설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1933년 7월 1일에 간행된 잡지 『別乾坤 65호』에 “滄南藥局의 徐丙孝”라는 기록이 있으므로<sup>33)</sup> 1933년 이전에 개설했음은 분명하다.

『每日新報』에 따르면 1939년 3월 7일 오전 6시 京城 雲泥町 7에 있던 자택에서 향년 83세로 별세했다(사진 4).<sup>34)</sup> 사망으로 의생면허를 반납하게 되는데 이때의 면허는 8166번으로<sup>35)</sup> 처음 받은 면허를 분실하여 재발급한 것으로 추정된다.<sup>36)</sup> 족보에 따르면 그의 묘는 경북 榮豊郡(현재의 榮州市) 安定面 墨洞이다.<sup>37)</sup> 영주에 묘가 있고, 직계 후손도 살았지만 그가 영주에서 거주한 시기는 분명하지 않다.<sup>38)</sup>

徐丙孝는 시종원과 이왕실의 典醫長을 지내는 등 官歷이 화려했지만, 민간의 단체에서는 이력이 별로 없다. 이는 그가 의료 관련 단체를 구성하고 모임을

33) 『別乾坤 65호』.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근현대잡지자료. [cited 2020 July 21]; Available from: [http://db.history.go.kr/item/level.do?setId=1&itemId=ma&synonym=off&chinessChar=on&page=1&pre\\_page=1&brokerPagingInfo=&position=0&levelId=ma\\_015\\_0600\\_0060](http://db.history.go.kr/item/level.do?setId=1&itemId=ma&synonym=off&chinessChar=on&page=1&pre_page=1&brokerPagingInfo=&position=0&levelId=ma_015_0600_0060)

34) 『每日新報』 1939년 3월 .9일 기사.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의사아카이브 [cited 2020 July 21]; Available from: <http://viewer.nl.go.kr:8080/main.wviewer>

35) 『조선총독부관보』 1939년 5월 4일자. 국립중앙도서관. 조선총독부관보시스템[cited 2020 July 21]; Available from: <http://https://www.nl.go.kr>

36) 박훈평. 일제강점기 영년의생 연구. 한국의학학회지. 2016. 29(1). pp.38-39.

37) 경주시립족보도서관. 달성서씨 학유공파보 [cited 2020 July 21]; Available from: [http://jokbo.gyeongju.go.kr/bbs/board.php?bo\\_table=familytree&sf1=wr\\_6&stx=472&stx1=달성&sfidx=0#page/1](http://jokbo.gyeongju.go.kr/bbs/board.php?bo_table=familytree&sf1=wr_6&stx=472&stx1=달성&sfidx=0#page/1)

38) 송지향에 따르면 『四醫經驗方』으로 잘 알려진 儒醫 이석간이 살던 집에서 徐丙孝가 장남이 사망한 뒤(1918년) 낙향하여 한 때 살았다 한다. 송지향, 유계생. 영주영풍향도지 상. 여강출판사. 서울. 1987. pp. 472-473. 그렇다면 대략 1818-1923년 사이의 기간으로 추정된다. 부친은 안동에 모친은 영주에 묘가 있으므로 선대부터의 세거는 아니다(표 1).

이끄는 사회활동보다는 임상이라는 본연의 자리에 더 충실했던 결과로 보인다.

사진 4. 『매일신보』(1939년 3월 9일)의 기사



徐丙孝은 安東權氏 權奎益의 女와의 사이에서 3남을 두었는데 첫째 徐廷麟은 대한제국기에 6품 主事를 지냈다. 徐廷麟의 차남 徐隆錫(1903-1962)은 일제강점기에 안정면 면협의회의원(1935),<sup>39)</sup> 해방 이후 안정면장(1945.8.20.-1947.1.31.)과 영주 전매서장(1954)을 지냈고,<sup>40)</sup> 장손인 徐天洙(1918-?)는 면의회의장을 지내는 등 徐丙孝의 후손은 경북 영풍(현재의 경북 영주시) 지역의 유지였다.<sup>41)</sup>

## 2. 『經驗古方要抄』 고찰

### 1) 서지연구

『經驗古方要抄』의 서지사항은 신연활자본 1책, 4침안정법으로 선장 체책되었고, 전체 분량은 노루지 접장으로 102장이며, 책의 크기는 24.1×16.5m이다. 표침지에 "經驗古方要抄"로 되어있으며 판권지에 따르면 쇼와11년(1936) 2월 29일 한성도주주식회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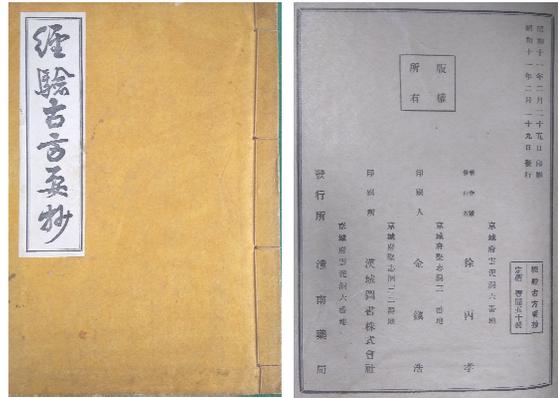
39) 『每日新報』 1935년 5월 26일 기사.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cited 2020 July 21]; Available from: <http://viewer.nl.go.kr:8080/main.wviewer>

4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근현대인물자료. [cited 2020 July 21]; Available from: [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im\\_107\\_30082](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im_107_30082)

41) 경주시립죽보도서관. 달성서씨 학유공파보 [cited 2020 July 21]; Available from: [http://jokbo.gyeongju.go.kr/bbs/board.php?bo\\_table=familytree&sf1=wr\\_6&stx=472&stx1=달성&sfidx=0#page/1](http://jokbo.gyeongju.go.kr/bbs/board.php?bo_table=familytree&sf1=wr_6&stx=472&stx1=달성&sfidx=0#page/1)

서 인쇄하여 경성부 동남약국에서 발행하였다(사진 5).<sup>42)</sup> 현존본을 보면 같은 판권지의 판본만 존재하여 일제강점기의 다른 판본은 없다. 현재 기관 소장본으로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국립중앙도서관, 연세대, 영남대,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 등이 있어서<sup>43)</sup> 일제강점기에 널리 보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5. 『經驗古方要抄』의 표지와 판권지



『經驗古方要抄』의 구성은 서문, 본문으로만 구성되었는데 목록이나 부록은 없다. 앞표지와 서문 사이에 2면 분량의 正誤表가 수록되었다. 서문은 저자 자신이 신미년(1931) 10월에 쓴 것과 출간 즈음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東愚 金觀鎬가 쓴 것, 2개이다. 東愚 金觀鎬(1863-?)는 대한제국의 宮內部事務官 등을 지내며 저자와 親交를 맺었다.<sup>44)</sup> 서문, 본문은 순 한문으로만 기술되었는데 본문 말미의 單方만 한글로 현토하였다.

42) 논자의 개인소장본을 토대로 조사하였다. 서병효. 경험고방요초. 경성. 동남약국. 1936.

43) 이정현. 한의학 고서 목록.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19. p.40.

4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근현대인물자료. [cited 2020 July 21] Available from: [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im\\_101\\_00968](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im_101_00968). 당시 유명한 서양화가였던 金觀鎬는 1890년 생으로 서문 내용에서 "余友白南"이란 표현이 있으므로 1857년 생인 저자와 연배가 맞지 않는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민족문화대백과사전. [cited 2020 July 21] Available from: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08692](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08692)

2) 목차 구성

『經驗古方要抄』가 정조조 首醫 康命吉이 저술한 『濟衆新編』(1799년 간행)의 목차 순서를 따르고 내용도 유사함은 김남일에 의해 소개된 바 있다.<sup>45)</sup> 이 정화에 따르면 『濟衆新編』은 『東醫寶鑑』의 105개 항목 중 39개 항목을 삭제하고 4개의 항목을 추가했다.<sup>46)</sup> 지창영은 『濟衆新編』은 『東醫寶鑑』과 달리 外感과 內傷을 앞으로 빼는 등 실제 임상에서 활용도를 위하여 기타 의서의 체계로 복귀시켰다 평하였다.<sup>47)</sup> 따라서 『濟衆新編』의 체제를 따랐다면 『東醫寶鑑』의 체제를 일부 따랐다는 말도 된다. 아래의 표(표 2)는 『經驗古方要抄』와 『濟衆新編』의 목차를 비교한 내용이다.<sup>48)</sup> 이를 보면 『經驗古方要抄』가 목차 구성에 있어 『濟衆新編』을 藥性歌와 單方을 제외하면 그대로 따랐다. 다만 『經驗古方要抄』는 『東醫寶鑑』의 항목을 직접 참고하지는 않았다.<sup>49)</sup> 『東醫寶鑑』 항목 중에 『濟衆新編』에서만 추가되거나 삭제된 항목이 『經驗古方要抄』에도 그대로 나온다.

표 2. 『濟衆新編』과 『經驗古方要抄』 항목 비교

『濟衆新編』 권1

순번	항목명	경험고방요초	제중신편
1	風	○	○
2	寒	○	○
3	暑	○	○
4	濕	○	○
	(燥)	○	○
5	火	○	○

『濟衆新編』 권2

6	內傷	○	○
7	虛勞	○	○
	身形	×	○
8	精	○	○
9	氣	○	○
10	神	○	○ - 神
11	癩癩	○	
12	血	○	○
13	夢	○	○
14	聲音	○	○
	言語	×	○
	津液	×	○
15	痰飲	○	○

『濟衆新編』 권3

16	五藏	○	○
17	六腑	○	○
18	蟲	○	○
19	小便	○	○
20	大便	○	○
21	頭	○	○
22	面	○	○
23	眼	○	○
24	耳	○	○
25	鼻	○	○
26	口(舌)	○	○
27	牙	○	○ - 牙齒
28	齒	○	
29	咽喉	○	○

『濟衆新編』 권4

30	頸(項)	○	○
31	背	○	○
32	胸	○	○
33	乳	○	○
34	腹	○	○
	臍	×	○
35	腰	○	○
	(脅)	○	○
36	皮	○	○
37	脈	○	○

45) 김남일. 근현대 한의학인물실록. 파주. 들녘. 2011. p.47.  
 46) 추가된 항목은 권7의 痘疹, 麻疹, 養老와 권8의 藥性歌이다. 이정화. 제중신편의 인용문헌 연구. 서지학보. 2010. 35. pp.67-70.  
 47) 지창영. 제중신편과 동의보감의 비교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1(2). pp. 136-137, 146.  
 48) 『濟衆新編』 원문은 강명길. 원본 제중신편. 서울. 행림서원. 1971을 활용하였다. 표 내용 중에 항목명에서 '( )' 은 원문에서 항목이 따로 구분되어있지 않으나 내용은 있는 경우이다. 제중신편 내용에서 "-"은 『經驗古方要抄』에서는 2개로 분리되었으나 『제중신편』에서는 하나의 항목일 경우에 사용하였다.  
 49) 『東醫寶鑑』 원문은 한국한의학연구원. 내 손안에 동의보감 원문강독편. 광주. 수퍼노바. 2017를 활용하였다.

38	手	○	○
39	足	○	○
40	毛(髮)	○	○
41	前(陰)	○	○ - 前陰
42	婦人陰門	○	
43	後(陰)	○	○
44	癰(亂)	○	○
45	嘔(吐)	○	○
46	咳(嗽)	○	○ - 咳逆
47	飽	○	

『濟衆新編』 권5

48	積(聚)	○	○
49	浮(腫)	○	○
50	脹(滿)	○	○
51	消(渴)	○	○
52	黃(疸)	○	○
53	痲	○	○
54	瘡	○	
55	癰(疫)	○	○
56	邪(崇)	○	○
57	癰(疽)	○	○ - 癰疽
58	膏	○	
59	(諸)瘡	○	○ - 諸瘡
60	凍	○	
61	湯	○	
62	梅	○	
63	諸(瘡)	○	
64	解毒	○	○
65	救(急)	○	○ - 救急
66	尸	○	
	雜方	×	○

『濟衆新編』 권6-8

67	婦人	○	○
68	胞	○	○
	(小兒)	○	○
	(痘疹)	○	○
	(麻疹)	○	○
	(養老)	○	○
	藥性歌	×	○
69	單方	○	×

3) 내용 분석

본문은 『濟衆新編』의 원문을 축약하여 인용하였다. 다만 말미의 「單方」만 『濟衆新編』의 인용은 없고 『東醫寶鑑』에서 대부분 인용하였다. 『東醫寶鑑』 각 병증에 실린 單方에서 일부 내용을 빼고 인용하였다. 예를 들어 ‘風’ 항목을 보자면 『東醫寶鑑』에서는 38종의 약제가 수록되었는데 『經驗古方要抄』에서는 7종이 수록되었다(표 3).<sup>50)</sup> 『東醫寶鑑』에서는 약제별로 수록되었는데 『經驗古方要抄』에서는 병증별로 수록되었다는 차이가 있고 단방의 병증 큰 목적은 앞서 본문의 목차를 따르고 있어서 『濟衆新編』을 따른다.

표 3. 「單方·風」의 출전 문헌

병증	단방	출전 문헌
口眼喎斜	石灰醋炒	東醫寶鑑 雜證篇 風 單方
三十六風	石菖蒲根	上同
	防風	上同
一切風及百節風	羌活	上同
中風口噤不省	獨活	上同
一切風及風痺并 中風口噤不省	白朮	上同
中風失音不言煩熱	生梨汁	上同

「單方」에서 『東醫寶鑑』 외의 인용서는 원문 내용에 저자가 인용 기록을 하였는데 2종에 불과하다. 「寒」 항목에서 傷寒解肌除煩熱을 치료하는 柴胡 내용을 『方藥合編』과 『醫學入門 傷寒』에서 인용하였다. 일제강점기 한의서 중에 「單方」을 다룬 책들이 다수 등장하는데<sup>51)</sup> 『經驗古方要抄』의 「單方」도 이러한 출

50) 내용 별 인용문헌의 자세한 내역은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다른 본문이 모두 순 한문임에 반해 單方만 한글 현토가 된 점도 인용 출전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51) 당시 간행된 단방 관련 의서로는 신만, 정약용의 『단방신편』(1909년 초간)과 신해용의 『단방비요경험신편』(1913년 초간)을 들 수 있다. 이에 관련된 연구로는 다음이 있다. 한지원, 일제강점기 단방신편의 편제와 내용, 장서각, 2015. 33. pp. 258-288. 전종욱, 단방신편 이후 문헌전승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4. 27(4), pp. 1-13. 구현희, 일제강점기 연해한의서 단방비요경험신편

판 요구에 부응한 결과로도 생각된다. 그럼에도 당시 단방 관련 의서들이 민간방 위주였다면 『經驗古方要抄』는 『東醫寶鑑』이라는 전통적인 텍스트를 따랐으므로 차이가 있다. 저자가 『東醫寶鑑』 체계의 의학에 철저했다 평할 수 있다. 오재근은 『東醫寶鑑』의 단방이 단일한 본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구성된 치료 처방’ 정도의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어 『東醫寶鑑』의 계승에서 『壽民妙詮』과 『濟衆新編』, 『醫方撮要』의 사례를 들어 단방 내용은 계승되지 못했음을 논하였다.<sup>52)</sup> 이러한 면에 있어 『經驗古方要抄』는 『東醫寶鑑』의 단방 전통을 복원 계승시켰다는 의의가 있다.<sup>53)</sup> 그런데 『經驗古方要抄』의 「單方」은 『東醫寶鑑』과 달리 본초명이 아닌 병증별로 수록하고 있어 『濟衆新編』을 따른다. 『東醫寶鑑』의 단방을 따르면서도 『濟衆新編』의 임상 편의성으로 보완하였다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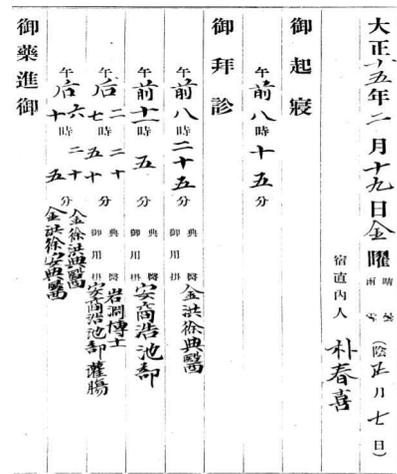
전체적으로 『經驗古方要抄』은 『濟衆新編』을 중심으로 하여 『東醫寶鑑』으로 보충하여 간략하게 만든 책이라 평할 수 있다. 책체의 ‘經驗’이라는 말처럼 본인의 경험이 간략화의 기준이 되었다. 그럼에도 본인이 창방하거나 자신의 경험만으로 가감한 처방을 수록하지 않은 점도 특색이다. 『經驗古方要抄』 서문에서 ‘博採集略合成一編’라 함도 이러한 뜻이다. 철저하게 옛 의서에 입각하여 기술하였을 뿐이다.

이상으로 徐丙孝가 『東醫寶鑑』과 『濟衆新編』의 의학관을 충실하게 계승 발전시켰음을 알 수 있다. 徐丙孝가 病因의 대부분을 類傷寒으로 보는<sup>54)</sup> 관점도 이러한 맥락이며 이는 목차 구성에서도 여실하게 나타난다.

### 3. 『內殿日記』 처방 고찰

『內殿日記』는 1926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궁궐 내에서 생활하던 순종의 하루 일상에 대하여 이왕직실록편찬실에서 기록한 일기이다.<sup>55)</sup> 주로 건강에 관한 내용 위주로 순종에게 배진한 전의의 명부, 시간, 배진된 약이 기록되어 있어 일제강점기 왕실진료에 관한 중요한 1차 사료이다(사진 6).

사진 6. 『內殿日記』의 본문



다만 이 일기 내용에 있어 徐丙孝가 다른 典醫없이 단독으로 배진한 경우는 없다. 그러나 그가 남긴 다른 醫案이나 진료기록이 없으므로 이 일기에 대한 분석은 徐丙孝의 치료관을 살피는 자료가 된다. 의서 기술에서 보였던 특징이 실제 임상에서도 구현되는가 여부도 중요하다. 일기 당시의 徐丙孝는 典醫長官으로 다른 전의들과 비교하여 首醫에 위치에 있었으므로 처방을 내릴 때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며 그가 반대하는 처방이 시도되었을 가능성은 낮다. 다음은 徐丙孝가 배진했을 경우 순종에게 행한 다용 처방이다(표 4, 부록).<sup>56)</sup>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6. 29(1). pp.89-101.

52) 오재근. 약 하나로 병 하나 고치기. 의사학. 2013. 22(1). pp. 10, 27-28.

53) 관찬의서와 달리 민간의서에서는 이경화의 『광제비급』, 서유구의 『인제지』 사례처럼 단방 전통이 계승 발전되고 있다. 오재근. 약 하나로 병 하나 고치기. 의사학. 2013. 22(1). pp. 29-30.

54) 『經驗古方要抄』序 “그러므로 온갖 병은 類傷寒이니 병을 대하여 症을 논함에 반드시 먼저 內外(內外傷)를 살피이 의술에서 너무도 分明함이라. 故百病皆類傷寒, 對病論症, 必先內外, 醫之大分明矣.”

55) 『內殿日記』 해제.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 장서각. [cited 2020 July 20]; Available from: [http://yoksa.aks.ac.kr/jsp/aa/HajeView.jsp?aa10up=kh2\\_je\\_a\\_vsu\\_20189\\_000](http://yoksa.aks.ac.kr/jsp/aa/HajeView.jsp?aa10up=kh2_je_a_vsu_20189_000)

56) 양의사인 安相浩, 전통의사인 洪在皞와 金東錫이 주로 함께 배진하였다. 일차별 처방은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內

표 4. 『內殿日記』의 다용처방

순위	처방명	처방 횟수	비율
1	(加味)煖肝煎	24	20.51
2	(加味)理中湯	18	15.38
3	(加味)君子湯	15	12.82
	蔘蘇飲	15	12.82
5	(加味)養胃湯	12	10.25
6	蔘茶	6	5.12
7	加味建脾湯	5	4.27
	加味實脾散	5	4.27

16종이 117회에 걸쳐 처방되었는데 그중 8종이 전체 처방 횟수의 85.44%에 달한다. 순종이 승하하기 불과 1-2개월 전의 기록이라 주로 補陽, 補氣藥이 주이므로 병증의 다양성을 살필 수는 없으나 적어도 徐丙孝의 다용처방이 어느 문헌에 기인했는지는 알 수 있다(표 5).

표 5. 『內殿日記』 다용처방의 출전

순위	처방명	출전	기타
1	(加味)煖肝煎	景岳全書	醫宗損益
2	(加味)理中湯	東醫寶鑑	濟衆新編
3	(加味)君子湯	東醫寶鑑 <sup>57)</sup>	濟衆新編
	蔘蘇飲	東醫寶鑑	濟衆新編
5	(加味)養胃湯	東醫寶鑑 <sup>58)</sup>	濟衆新編
6	蔘茶	미상	미상
7	加味健脾湯	東醫寶鑑 <sup>59)</sup>	濟衆新編
	(加味)實脾散	東醫寶鑑	濟衆新編

가장 많이 사용된 煖肝煎은 장경약의 新方이므로 이 시기 전의들이 경약의학의 수용했다는 증거가 된다. 이는 『經驗古方要抄』 수록 처방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다. 蔘茶의 경우 출전문헌을 확인할 수 없으나 대한제국 이전시기부터 궁중과 민간에서 처방되어왔다. 김종오에 따르면 『承政院日記』에만 687회의 처방 기록이 있다.<sup>60)</sup>

殿日記』 이미지뷰어.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 장서각. [cited 2020 July 20]; Available from: [http://yoksa.aks.ac.kr/jsp/aa/HajeView.jsp?aa10up=kh2\\_je\\_a\\_vsu\\_20189\\_000](http://yoksa.aks.ac.kr/jsp/aa/HajeView.jsp?aa10up=kh2_je_a_vsu_20189_000)

57) 『동의보감』에는 가미사군자탕, 가미육군자탕이 나온다.

58) 『동의보감』에는 인삼양위탕, 향사양위탕이 나온다.

59) 『동의보감』에는 삼출건비탕이 나온다.

이상의 『內殿日記』의 처방 분석으로 보면 徐丙孝는 기존 궁중 의학 전통을 충실히 따르면서 효과가 검증된 새로운 처방도 활용하였다. 경약의 煖肝煎이 그 예이다. 앞서 『經驗古方要抄』의 내용 분석에서도 기존 궁중 의학 전통을 따랐던 점은 분명했다.

### III. 결론

본 연구에서는 徐丙孝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그 자료를 바탕으로 그의 생애를 재구성하고, 장차 그의 의학 사상을 분석하려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예비적 고찰을 하였다. 이를 위해 족보, 관보, 『經驗古方要抄』, 『內殿日記』 등을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는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徐丙孝는 대한제국, 일제강점기에 걸쳐 사회적 활동보다는 주로 임상사로서 종사하였다. 그는 영남 남인계 대구서씨 가계에서 태어나, 대한제국기에는 嘉善大夫, 侍從院典醫長을 일제강점기에는 李王職典醫, 勅任官 대우, 훈3등을 지냈고 의학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의 활동은 적은 편이다. 이는 그가 임상이라는 본연의 자리에 더 충실했던 결과로 추정된다.
2. 『經驗古方要抄』는 『濟衆新編』을 중심으로 하고 『東醫寶鑑』으로 보충하여 간략하게 만든 책이다. 본문은 『濟衆新編』의 편제와 내용을 따랐고, 「單方」은 『東醫寶鑑』의 내용으로 보충하였다.
3. 『經驗古方要抄』는 『東醫寶鑑』의 「單方」 전통을 복원 발전시켰다는 의의가 있다. 조선 후기의 관찬서 『壽民妙詮』과 『濟衆新編』, 『醫方撮要』에서 『東醫寶鑑』의 단방 내용은 계승되지 못하였다.
4. 徐丙孝는 기존 궁중 의학 전통을 충실히 따르면서 효과가 검증된 새로운 처방도 활용하였다. 『內殿日記』의 처방 분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경약의 煖肝煎이 새로운 처방의 사례이다.

60) 김종오. 조선시대 다약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pp.38, 68-69.

결론적으로 徐丙孝는 『東醫寶鑑』과 『濟衆新編』의 의학관을 충실하게 계승 발전시킨 임상의라 평할 수 있다. 본 연구는 徐丙孝 의학 사상 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이며 현존 자료의 미비로 그의 학술적 체계가 어떻게 정리되었는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아니다. 이후 徐丙孝에 대한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어 이보다 더욱 진전된 연구가 있기를 기대한다.

## References

1. 강명길. 원본 제증신편. 서울. 행림서원. 1971
2. 구현희. 일제강점기 연해한의서 단방비요경험 신편연구. 한국외사학회지. 2016. 29(1)
3. 김남일. 근현대 한의학인물실록. 파주. 들녘. 2011
4. 김중오. 조선시대 다약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2010
5. 박훈평. 일제강점기 영년의생 연구. 한국외사학회지. 2016. 29(1)
6. 박훈평. 일제강점기 의생총목록 1.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17
7. 박훈평. 조선시대 의관총목록.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18
8. 서병효. 경험고방요초. 경성. 동남약국. 1936
9. 송지향, 유계생. 영주영풍향토지 상. 여강출판사. 서울. 1987
10. 오재근. 약 하나로 병 하나 고치기. 의사학. 2013. 22(1)
11. 유희영, 신민교, 맹웅재. 한국의약인명사전. 의성사. 서울. 1991
12. 이정현. 한의학 고서 목록.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19
13. 이정화. 제증신편의 인용문헌 연구. 서지학보. 2010. 35
14. 이진태 저. 안상우 외 5인 역. 국역 단곡경험방 1.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15. 전중옥. 단방신편 이후 문헌전승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4. 27(4)
16. 지창영. 제증신편과 동의보감의 비교 연구. 한국외사학회지. 2008. 21(2)
17. 한국한의학연구원. 내 손안에 동의보감 원문 강독편. 광주. 수퍼노바. 2017
18. 한지원. 일제강점기 단방신편의 편제와 내용. 장서각. 2015. 33.
19. 황영원. 가려진 의생단체의 모습. 사람. 2017. 59
20. 황영원. 일제시기 한의학 교육과 전통 한의학의 변모. 의사학. 2018. 27(1)
21. 경주시립축보도서관. 달성서씨 학유공과보 [cited 2020 July 21]; Available from: <http://jokbo.gyeongju.go.kr>
22.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cited 2020 July 21]; Available from: <http://viewer.nl.go.kr>
23.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검색. [cited 2020 July 21]; Available from: <https://www.nl.go.kr>
24. 국립중앙도서관. 조선총독부관보시스템 [cited 2020 July 21]; Available from: <http://https://www.nl.go.kr>
25.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cited 2020 July 20]; Available from: <http://sjw.history.go.kr>
26.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DB [cited 2020 July 21]; Available from: <http://sillok.history.go.kr>
2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근현대인물자료. [cited 2020 July 21]; Available from: <http://db.history.go.kr>
2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근현대잡지자료. [cited 2020 July 21]; Available from: <http://db.history.go.kr>
29.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장각원문자료검색 원문검색. [cited 2020 July 20]; Available from: <http://kyudb.snu.ac.kr>
30. 안동권씨 대종회. 안동권씨 인터넷족보. [cited 2020 July 21]; Available from: <http://andongkwon.or.kr>

31. 인제대학교. 족보도서관. [cited 2020 July 21]; Available from: <http://genealogy.inje.ac.kr>
32.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 장서각. [cited 2020 July 20]; Available from: <http://jsg.aks.ac.kr>
33. 한국학중앙연구원. 민족문화대백과사전. [cited 2020 July 21]; Available from: <http://encykorea.aks.ac.kr>
34.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교전DB. [cited 2020 July 22]; Available from: <https://mediclassics.kr>

[부록]

『內殿日記』의 徐丙孝 처방 기록

1926년 2月

일	처방
2	加味參朮健脾湯
4	參朮健脾湯 / 參蘇飲
5	參蘇飲
6	參蘇飲 / 理中湯
7	加味養胃湯 / 參蘇飲 / 理中湯
8	加味理中湯 / 理中湯
9	參蘇飲 / 理中湯
10	加味理中湯
11	加味理中湯
12	加減理中湯
13	養胃湯 / 潤血飲
14	潤血飲 / 加味健脾湯
15	參蘇飲 / 加味健脾湯
16	參苓飲 / 加味健脾湯
17	參苓飲 / 加味健脾湯 / 加味養胃湯
18	加味養胃湯 / 加味健脾湯
19	參蘇飲 / 加味煖肝煎
20	加味煖肝煎
21	수삼다 / 加味煖肝煎
22	煖肝煎 / 煖肝煎
23	煖肝煎 / 煖肝煎
24	煖肝煎
25	煖肝煎
26	煖肝煎 / 加味煖肝煎
27	煖肝煎
28	加味煖肝煎

1926년 3月

일	처방
1	煖肝煎
2	竹葉茶 / 參蘇飲 / 加味荊蘇湯 / 養胃湯 / 參蘇飲 / 清心丸
3	五積散 / 參蘇飲 / 五積散 / 參蘇飲
4	煖肝煎 / 參蘇飲 / 煖肝煎
5	煖肝煎 / 參蘇飲 / 煖肝煎 / 參蘇飲
6	煖肝煎 / 養胃湯 / 參茶 / 理中湯
7	加味理中湯 / 理中湯 / 薑半夏
8	理中湯 / 理中湯 / 參茶
9	加味理中湯 / 理中湯
10	理中湯 / 養胃湯
11	理中湯 / 理中湯 / 參茶
12	加味理中湯 / 參茶
13	煖肝煎
14	煖肝煎 / 不換金正氣散
15	煖肝煎
16	加味煖肝煎 / 加味君子湯
17	加味君子湯 / 加味君子湯
18	加味君子湯 / 君子湯
19	加味君子湯
20	加味君子湯
21	加味君子湯 / 養胃湯
22	加味君子湯 / 加味君子湯
23	加味君子湯 / 君子湯
24	加味君子湯 / 加味君子湯 / 參茶
25	君子湯 / 養胃湯 / 參茶
26	加味君子湯 / 加味實脾散 / 參茶
27	加味實脾散 / 參茶
28	實脾散 / 養胃湯 / 養胃湯
29	加味養胃湯 / 加味正氣散
30	加味實脾散 / 實脾散
31	橘皮煎元 / 加味實脾散 / 橘皮元